광양시, 전통시장 살리기 힘 받았다

공모사업 선정 10억원 확보…상인사관학교·토요장터 운영

광양 5일시장-문화관광형, 중마상설시장-골목형 시장 육성

광양시가 침체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두팔을 걷어올렸다.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형 시장 등 특색있는 전통시장으로 조성해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광양시는 10일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한 '201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에서 광양 5일시장과 중마상설시장이 선정돼 국비 10억 2000만원을 지원받게됐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광양 5일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3년동안 국비 7억8000만원 등 총 15억6000만원을 투입하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중마상설시장은 국비 2억4000만원 등 4억 8000만원을 들여 골목형 시장으로 조성된다.

광양시는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명품 상인사관학교 운영 ▲레시피개발 ▲로컬푸드 요리교실 ▲토요장터(피서철 장터 운영) ▲브랜드 상품개발 ▲협동조합 설립 ▲고객감사 한마당 축제 공연 ▲문화체험행사 ▲상설체험장 설치 ▲주막촌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도 구상중이다.

광양시는 조만간 관련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세부사업을 확정해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조춘규 광양시 지역경제과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립기반 구축과 상인들의 마인드 향상은 물론 광양5일시장 명칭변경 등 문화예술과 관광이 연계된 상설시장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광양 5일 시장에서 시민들이 장보기를 하고 있다.

윤동주와 윤형주의 이야기 콘서트

육촌 관계…19일 다압면 느랭이골 자연리조트서 공연

친구 정병욱에 맡긴 유고집 등 광양과의 인연·삶 회상

시인 윤동주

가수 윤형주

광양시가 다압면 느랭이골 자연리조트에서 '동주와 윤형주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한다.

오는 19일 열리는 콘서트는 최근 영화 동주 상영으로 윤동주 시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동주와 광양의 인연을 알리고 광양매화축제(18~27일)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가수 윤형주 씨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로 윤동주 시인과는 육촌관계다.

이번 행사는 가수 윤형주씨가 공연 중간 중간마다 윤동주 시인의 삶과 죽음, 망덕포구와 유고집이 갖은 의미 등에 대해 관객들과 함께 윤동주 시인을 회상하는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된다.

콘서트가 개최되는 느랭이골 자연리조트는 1430만개의 LED전구가 어두운 밤을 화려하게 수놓아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곳이다.

윤동주 시인의 육필 원고가 보관 중인 망덕포구에 있는 정병욱 선생의 가옥.

1430만개의 LED전구로 화려하게 수놓은 느랭이골 자연리조트.

광양과 윤동주 시인의 인연은 정병욱 선생의 인연과 맞닿아 있다.

정병욱 선생은 연희전문학교 시절 윤동주 시인과 기숙사, 하숙 생활을 함께하며 깊은 교유와 친분을 쌓은 인물이다.

그는 학도병으로 끌려가기 전 시고를 어머니에게 맡겨 해방 후 시집이 발간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동주 시인의 유고집을 보존한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등록문화재 제341호)'은 섬진강 끝자락인 광양시 진월면 망덕포구에 있다.

1925년 진월면 망덕리에 건립된 이 가옥은 윤동주 시인의 친구인 백영 정병욱(작고·전 서울대 교수) 선생과 그의 가족에 의해 윤동주 시인의 육필 원고가 고스란히 보존됐던 장소다.

1941년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 윤동주 시인은 그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발간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이 원고를 친구인 정병욱 선생에게 맡겼다고 한다.

정병욱 선생은 윤동주 시인의 육필원고를 보관해 오다 광복 후 1948년에 간행해 윤동주 시인의 주옥같은 시 세계를 세상에 내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윤동주 시인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란 시집을 출간하려 했지만 시인의 신변을 걱정한 스승 이양하 선생의 만류로 단념하고 3부를 자필로 작성해 이양하 선생과 친구 정병욱에게 증정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은퇴한 어르신들 학생 안전 지키기 앞장

광양경찰 아동안전지킴이 발대

광양경찰(서장 양우천)은 "최근 새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은퇴한 어르신 28명이 참여하는 아동안전지킴이는 사회공헌·봉사형 일자리 사업으로, 초등학생을 성범죄·학교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광양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는 이달부터 12월까지 광양시 관내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놀이터 등 아동들의 활동이 많은 곳에 배치된다.

양우천 광양경찰서장은 "어르신들께서 모든 아이를 내 손자, 손녀라는 생각으로 아동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김경원기자 kkw@

움직이는 도서관 올해도 찾아갑니다

'그림책 버스' 6년째 운영

'그림책 버스'에서 지역 어린이들이 독서강사의 동화구연에 푹 빠져있다.

광양시립중앙도서관이 움직이는 도서관서비스인 '그림책 버스'를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 그림책 버스 이용자는 도서관 취약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들이다.

광양시는 지난해 12월 신청서를 받아 그림책버스 방문 희망처를 선정했으며, 현재 매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읍·면 지역 병설유치원과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달까지 진월, 진상, 옥곡 등 8개 지역 보육기관을 방문했으며, 이번 달에는 태인, 옥룡, 다압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중이다.

주 1회 찾아가는 그림책버스에는 독서 강사가 배치돼 만들기 프로그램과 재미있는 손 유희, 동화구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방문지 별로 각 20권씩 도서 대출서비스도 가능하다.

또 오는 8월 휴가철에는 백운산자연휴양림에서 '그림책 버스 작은도서관'도 특별 운영할 계획이다.

양경순 광양시 도서관지원팀장은 "올해로 6년째 시행하고 있는 그림책버스가 도서관을 충분히 이용할 수 없었던 지역 어린이는 물론 책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김경원기자 kkw@

장년층 대상 '그림책 인문강좌'

중마도서관 이달말부터

광양시는 10일 "'세대 공감, 희양 인문학당'사업으로 이달 말부터 중마도서관에서 50대 이상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그림책 인문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마도서관은 50대 이상을 위한 책 기반 인문 강좌인 '인생 후반전, 책과 더불어'를 통해 인생 후반기를 준비할 원동력을 마련해 준다는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여 수강생들은 매주 인생 키워드별로 토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며, 관련 그림책 읽기를 통해 문학적 감수성을 배양하게 된다. 운영기간은 오는 22일부터 6월 7일까지 12주간이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미라 중마도서관팀장은 "이번 강좌로 50대 이상 시민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서적 자양분을 얻기를 바란다"며 "하반기에도 중장년층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50대 이상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16일까지 전화(061-797-3881)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